임실군-35사단 '상생협력' 주목

군 장병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지역내 시너지 발휘
장병 일손돕기·수해복구·제설작업 등 '윈-윈'

올해로 육군 제35사단이 임실군에 둥지를 튼 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와 군부대 간 상생협력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실군의 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35사단의 지역 내 인구·경제·문화관광·봉사 등 선한 영향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훌륭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이후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전 당시에는 지역 내 반발기류가 상당했지만, 이후 35사단의 지역 내 미치는 긍정적 영향 덕에 지금은 되려 '35사단 이전이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35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관광 증대, 인구감소 억제, 주민세, 기타 지방세 등 지방재정수입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과 35사단측에 따르면 임실군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단 병력 덕에 연간 15억원 상당의 지방 수입 등을 비롯해 임실 생활권에 따른 소비지출 등 연간 6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장병의 소비지출에는 임실군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먼저 군은 외출하는 장병들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을 개인별로 매월 2천원권 2매, 훈련을 수료하는 신병에 대해서는 5천원권 1매씩, 장병 이발비로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상품권은 임실군 관내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출 장병들을 위한 차량 지원도 관내 운송업체와 함께 관내 6탄약창을 시작으로 현재 35사단까지 확대 운행, 평일 외출 장병들의 신속한 이동을 확보해 주고 외출 후 안전한 부대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관광 등 지원도 적극적이다. 부대의 입소식이나 수료식 행사가 있을 때 식전 행사로 국가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농악공연을 지원하여 면회객들에게 임실의 무형문화 유산을 알리고, 입·수료식 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의 참여로 군인 가족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료식에 면회 가족이 없는 나홀로 신병은 국립호국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지원으로 임실 투어와 식사 지원을 통해 소외감을 떨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35사단, 2대대, 6탄약창의 모범 장병 명단을 각 부대로부터 추천받아 관내 관광지 순회, 119안전체험, 치즈 만들기 체험, 영화관람 등 군부대 모범 장병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면서 장병들이 외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별 영화관 상영시간을 장병들의 외출 시간에 맞춰 조정하고, 할인을 대폭 적용하여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내 임실군생활체육공원, 군민체육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요청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특히 임실지역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군부대와의 상생협력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다.

장병들 또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해복구 지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시 영농 일손 돕기, 대설특보 발효로 눈이 많이 쌓이면 제설작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35사단 모범 장병들이 치즈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추진

남원시, 국비 3.6억원 증액 반영… 새 관광콘텐츠 자원화 계획

남원시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총사업비 150억원) 2024년도 국비 3.6억원(실시설계 용역비)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시에서는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관련 부처들을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시관은 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등을 포함한 연면적 2,400㎡ 규모로, 노암동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건립 예정다.

전시관에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역대 수상 귀속작 및 옻칠 목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한곳에 상설 전시하고 체험 공간도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전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전시관 건립을 통해 남원의 특화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원화해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으로 남원 목공예 문화가 지역에 국한된 전통산업이 아닌 한국 공예문화의 확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은 지난 2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현수 실업팀 단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선수단 임용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 실업팀 창단

신규 선수단 임용식 개최

순창군이 전문체육의 균형발전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한 순창군청 소속 실업팀인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했다.

군은 지난 2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현수 실업팀 단장(체육진흥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선수단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창단된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은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감독은 다년간 지역 학교 체육에 몸담아 왔던 김옥임 감독이 맡게 됐다. 선수는 대전고 출신의 이지영 선수를 비롯해 김채희, 문혜연, 신한나, 박시현 선수로 1월 1일 자로 순창군에 입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 착공

총사업비 315억원 투입

순창군이 여름철 섬진강댐 방류 시 상습 침수로 마을이 고립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계면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섬진강 자락에 위치한 동계면 장군목과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연풍경이 인기를 끌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도로의 폭(3.0미터 ~ 4.0미터)이 협소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많고, 도로 일부 구간이 장마철, 특히 섬진강댐 방류 시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어려워 마을이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도로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3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 구간에 연장 7.6킬로미터 폭 8미터 규모의 도로를 개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월 10만 → 13만원 인상

순창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1월 월 9만원이었던 보훈수당(사별한 배우자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도내 군 단위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지역별로 달리 평가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올해 하수관로 정비 국비 추가 확보

남원시가 2024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8.6억원을 국회예산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가예산 가내시결과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남원시는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아영 인풍지구(아영면, 인월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임실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일선 보장기관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식을 고취하고자 243개 자치단체 중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사업 실적이 우수한 26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평가에서 임실군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긴급복지 예산 집행 실적, 행복e음 변동 알림 처리 현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은 군민의 약 11%인 1,640가구를 기초수급자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읍면 담당자, 군청 희망복지팀·통합조사팀은 물론 협의체,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한 결과이다.

/임실=진홍영 기자